韓國水產業의 構造分析

—— 1946年~1956年의 推移를 中心으로 ——

朴 光 淳
(全南大學校·商科大學·助敎授)

차 례

Ⅰ. 問題의 所在
Ⅱ. 韓國水產業의 生產構造
Ⅲ. 韓國水產業의 階層·經營構造
Ⅳ. 韓國水產業의 流通構造
Ⅴ. 要 約

Ⅰ. 問題의 所在

오늘날 韓國水產業의 특질을 한마디로 標徵할 수 있는 용어를 求한다면 그것은 低生產力과 低所得이 아닐가 한다. 일반적으로 어업생산의 低生產性은 두가지 경우에 야기된다. 그 하나는 어획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업자원의 상대적 고갈에 기인하는 경우 즉 어업의 限界生產力이 零이거나 負인 경우요 다른 하나는 어업자원의 상대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어획노력자체의 절대적 미약에 의한 경우 즉 限界生產力이 正인 경우이다. 그러면 韓國水產業의 低生產性은 어디 기인할가. 「韓國水產業은 그 환경조건과 연해의 海況과 水產資源의 분포상과 그 구성등으로 보아 발전되게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1]고 지적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자연환경의 부적 내지 자연자원의 빈곤에서 보다도 오히려 人爲的인 측면 특히 경제적 측면에 더 깊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까닭으로 韓國水產業에 있어선 低生產性보담 도리혀 低生產力자체가 문제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한국의 地形을 말할 때 三面環海를 먼저 내세운다. 삼면이 바다에 둘러쌓인 반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바다에 生業의 일부를 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었다. 육지면적에 對比한 해안선의 길이는 세계최장의 것이며 東南西近海의 총면적 1,487,000km²와 그 용적 1,723,750km³는 육지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광대한 海域일 뿐아니라 이러한 넓은 海域의 海況은 고루고 거기 包藏된 수산자원은 풍부함을 감안할 때 韓國水產業의 自然的 與件은 아주 天惠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韓國水產業의 天惠的 자연조건에 대하여 좀 더 고찰해보기로 하자. 수산업이란 한마디로 말할 때 水界를 그 생산의 기초요건으로 하는 原始產業을 지칭한다. 따라서 水界는 수산업, 특히 狹義의 수산업——漁業과 養殖業(以下 本稿에서 수산업이라 할 땐 특별한 限定이 없는 限 이 뜻으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연요소인 것이다. 水界는 크게 內水面과 海面으로 二大別되거니와 오늘날 우리나라의 水產業은 주로 바다에

1) 鄭文基：韓國水產業近代化의 方向과 問題點. (韓國經濟問題研究會刊 韓國水產業近代化의 方案과 諸問題, 所收) 참고.

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1] 본고에선 논의의 대상을 海面에만 한정코자 한다.

그런데 水界 즉 해면이 있다고 해서 어업생산의 터 곧 어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장은 수산활동이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가 혹은 이루어질 수 있는 特定水界部分[2]으로서 어떤 水界가 어장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기에 유용수계동식물이 서식하거나 혹은 回遊해오는 장소여야 하며 둘째로 거기에서의 유용동식물의 採捕 및 養殖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소라야 하며 세째 그곳에서의 수산동식물의 採捕 및 養殖이 경제적으로 가능한 곳이라야 한다.[3] 첫째 및 둘째조건에 어장의 沃度와 豊度 및 位置를 뜻한다면 세째 조건은 수산활동이 단순한 非營利的 採取(game fishing)가 아니고 산업으로서 계속적 再生産이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장의 豊度와 位置 등의 자연적 조건은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기본적 요소인 耕地와는 달리 一部 沿岸의 淺海養殖漁場을 제외하고선 倍加的 資本投下에 의해서 人爲的으로 그것을 변경시키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연적 풍도와 위치 및 해항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韓國水產業의 자연조건은 어떠할까. 우리들은 위에서 韓國水產業의 자연적 여건은 아주 천혜적이라 하였다. 이하 그 所緣을 살펴보기로 하자. 韓國은 三面環海의 半島인데다가 3,305개의 島嶼를 가지고 있어서 海岸線의 길이는 表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약 26,000km에 달하여 육지면적에 비하면 세계 최장의 것이며 그를 위요한 東南西近海의 총면적과 용적은 表 2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광대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수산동식물의 産卵·孵化·成育 및 蓄殖의 장소가 되는 干潟地면적은 約 6,575km²에 달하고 魚族生物資源의 서식수역이 되는 大陸棚면적은 約 50萬 km²[4]로서 실로 廣大한 大陸棚上의 근해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表 1〉 道別海岸線의 길이

道別	半島 (m)	島嶼 (m)	計 (m)
咸北	503,900	538,200	1,042,100
咸南	451,650	549,200	1,000,850
江原	432,400	477,050	909,450
慶北	169,200	214,700	383,900
慶南	908,550	2,243,750	3,152,300
全南*	2,174,100	6,705,000	8,879,100
全北	256,000	446,050	702,052
忠南	1,353,800	1,884,500	3,238,300
京畿	528,400	1,415,600	1,944,000
黃海	1,179,900	1,617,900	2,797,800
平南	379,200	413,700	792,900
平北	356,000	763,700	1,119,700
計	8,693,100	17,262,700	25,962,450

* 全南엔 濟州道包含

資料：鄭文基, 韓國水產業近代化의 方向과 問題點.

뿐만 아니라 한국 沿海는 暖寒兩流가 서로 적당하게 교류하는 海區로서 海況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溫水性水產生物 資源과 寒流性水產資源이 多種 多量으로 번식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면 일부 熱帶性魚族까지도 回遊해 오는 潮境漁場도 발달되어 있다.

1) 한국의 內水面어업은 아직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1961년엔 불어 131㌧, 잉어 1㌧으로서 당년 총양식고의 2%밖을 占했으나 1962년 이후 불어는 없고 잉어만이 40㌧미만으로서 년년양식고의 0.05%를 占하고 있다. 「수산청」「수산통계연보」참고.

2) 岡本清造：水產經濟學 p. 88 참고.

3) 岡本清造：上揭書. pp. 88~89 참고.

4) 鄭文基：上揭論文. pp. 29~30 참고.

〈表 2〉 **韓國沿海面積과 水深表**

海 區	海水層(m)	面積(km²)	容積(km³)	平均水深(最深)(m)
東 海	200	210,200	180,500	
	200—1,000	171,500	574,000	
	1,000—2,000	218,200	516,800	
	2,000—3,000	184,600	315,400	
	3,000	223,100	111,600	
	計	1,007,600	1,698,300	1,684.m.(4,049m)
大 韓 海 峽	0— 40	11,300	2,790	
	40— 60	8,900	1,190	
	60— 80	6,500	1,040	
	80—100	15,100	820	
	100—200	32,600	1,780	
	—200	1,000	—	
	計	75,400	7,630	101m(103m)
黃 海	0—20	93,600	7,140	
	20—40	101,900	5,190	
	40—60	78,200	3,390	
	60—80	90,500	1,700	
	80	39,800	200	
	計	404,000	17,620	44m(103m)
渤 海 灣	0—20	42,900	1,230	
	20—40	36,700	430	
	40—60	2,100	40	
	60	1,000	10	
		82,700	1,710	21m(72m)
	合 計	1,569,700	1,715,300	

資料：鄭文基, 上揭論文.

이와 같이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곳에 번식하는 水產資源의 종류도 또한 풍부한 바 있으니 우리나라 연해에서 어획된 수산자원중에는 魚類가 854종, 貝類·文魚등 軟體類가 약 1,000종, 새우와 게등 甲殼類가 약 300종, 海藻類가 약 400종에 달하며 어류 854종중에는 우리 沿海에서만 서식하는 이른바 특산 어종이 36종이나 있다.[1]

이와같이 한국연해는 세계대어장중 그 년령이 가장 어리고 동시에 가장 풍부한 太平洋極東漁場水圈에 속하여 수산생물자원의 蕃殖·棲息水域이 되는 于潟地 및 大陸棚면적이 부교적 넓고 그 위를 흐르는 寒暖流의 교류가 적당하며 水溫이 알맞고 더욱 榮養鹽類가 豊富하여 多種多量의 수산자원을 包容하고 있는 好漁場이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우리들이 韓國水產業의 天惠的 自然條件을 云謂하는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좋은 자연조건을 개발하기 위한 人爲的인 노력은 어떠하였던가. 본고에서 우리들은 한국수산업의 발전과정을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漁獵은 어쩌면 農耕에 앞서 우

1) 鄭文基：上揭論文. p. 37 참고.

리 민족이 그들의 物的生活을 거기에 의존했을 것임을 추단할 때 그 역사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은 封建社會에 있어서의 의식구조의 후진성과 생산기술의 정체성 때문에 일본 어민의 韓海진출이 활발해지고 마침내 1876년의 開港, 1883년의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에 의한 通漁權獲得, 1889년의 「韓日通漁章程」 및 1910년의 韓日合邦등 一連의 과정을 거쳐 일본식 어구와 어법이 도입될 때까지 거의 化石처럼 정체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일본어민의 韓海通漁와 이민은 분명히 韓國水產業 특히 그 기술적 측면엔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경제적 측면 특히 한국어민의 경제생활면에서 볼 땐 기여보담 수탈이 컸던 것이니 왜냐하면 日人은 韓海의 좋은 어장을 독점하고 韓海漁業의 실권을 장악하므로써 그들을 영원히 自家消費的·零細漁家漁業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권을 회복한지도 20有年 그간에 韓海漁業의 주도권을 돌려받은 韓國水產業의 현황은 어떠한가. 한국수산업의 특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零細性과 後進性에 기인하는 低生產力·低所得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65년말 현재 水產業에 취업하고 있는 인구는 1,314,430명으로 전인구의 4.6%에 달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附加價値의 對GNP比率은 1.1%에 불과하다는 점 및 그 노동생산성이 뒤에 보는 바와 같이 物量으로 1.9㌧, 금액으로 35千원으로서 一般製造業의 150千원(1963년)에 비하여 약 1/5에 불과하다는 점등에 잘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低生產力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가. 위에서 韓國水產業의 天惠的自然條件을 살펴본바 있는 우리로선 自然的與件이 아닌 人爲的與件 특히 韓國水產業의 구조적 특질에 求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수산업의 육성 내지 근대화를 논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구조적 특질을 천명하고 그러한 특질에 基하여 근대화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수산업의 구조분석의 필요와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水產業의 구조를 분석해보고자 하거니와 한마디로 구조라 하드래도 그것은 크게 보아도 生產構造 流通構造로 나눌 수 있으며 나아가선 經營·階層·就業등등의 諸構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선 지면관계로 生產構造의 분석을 主로 하여 低生產力과 低所得의 원인을 구명하고 流通構造의 분석을 통해 그를 보완해보고자 한다.

Ⅱ. 韓國水產業의 生產構造

위에서 우리들은 오늘날 韓國水產業의 特質은 低生產力·低所得에 求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構造的 特質의 반증이라 말하였다. 그러면 그 一部分이라 할 수 있는 韓國水產業의 생산구조의 특질은 무엇일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本章의 과제이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韓國水產業의 생산구조의 특질은 첫째로 漁業勢力의 구조면에서 볼 때 本來 양적으로 微少함은 물론 질적으로도 無動力·小型漁船이 지배적인 零細性과 原始性을 免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餘他의 어업생산수단에 있어서도 기계화의 비율이 근소하여 手勞動爲主의 後進性을 免치 못하다고 있다는 점, 둘째로 漁業生產의 가장 중요한 自然要素인 漁場構成이 첫째번 漁業勢力의 구조적 특질의 반영으로서 상대적으로 狹少한 沿岸漁場에만 蝟集하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는바 요컨데 韓國水產業의 생산구조의 특질은 零細性과 後進性에의 偏向이라는 사실로 집약할 수 있지 않을가 한다. 이하 諸特質을 천착해 보기로 하자.

1. 漁業勢力構造

水產業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水界를 생산의 기초요건으로 하여 수산생물자원을 採取·捕獲하거나 또는 養殖하는 業이라 하였거니와 이와같이 水產業의 노동대상인 수산생물자원은 水中에서 번식·서식하면서 索餌, 産卵, 適溫등을 찾아 혹은 나날이 혹은 계절적으로 回遊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魚群의 생태와 水界의 조건에 상응하는 특수한 생산방법(어로법)과 생산수단(어선·어구)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이업생산의 장소 즉 어장은 水界이므로 어장에의 왕복 水產生物資源의 채포등 제반 생산행정에 있어서 배를 필수불가결의 생산수단으로 所要하게 될 뿐아니라 어업의 노동장소인 어장자체가 어선의 大小, 速度 및 航續能力등에 의하여 크게 제약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업생산력의 발전 내지 이업의 근대화는 이선의 근대화=대형·기계화에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低生產力이라는 韓國水產業의 특질은 바로 量的 多少如何와 質的 大小如何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구체적 현황은 어떠한가. 우선 양적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表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선의 절대수가 극소하다. 1965년말현재 水產用船舶 총수는 51,052척(203,164₹)으로 就業者 일인당 척수 0.09척, 일인당 톤수 0.38톤인바 이는 한마디로 말하여 韓國水產業의 자본장비율의 低位性과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日本의 취업자 일인당 척수 0.62척 일인당 톤수 3.32톤(1963년 계산)에 비한다면 실로 今昔之感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해방후 20有年 이렇다할 변동없이 계속되어 왔었다는 점이다. 1965년말현재 수산용 선박총수 51,052척은 해방직전인 1944년의 남한임해 7도의 어업용선박총수 48,517척[1]에 비하여 겨우 2,535척의 증가에 불과하며 해방 익년인 1946년의 48,837척에 비교한다면 겨우 2,215척의 증가로서 이는 1944년 대비 5.2%의 성장이오 1946년 대비 4.5%의 성장으로서 그간의 수산인구(어업+양식업인구) 증가율 234.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서 일인당 척수 0.04척 일인당 톤수 0.16톤 이라는 심한 영세성을 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반가운 일은 척당톤수는 1946년의 3.42톤에서 3.98톤으로 늘어나 차츰 이

〈表 3〉 水產用船舶의 推移

年別	隻數(隻)	噸數(₹)	隻當噸數(₹)	一人當隻數(隻)	一人當噸數(₹)
1944	48,517				
1946	48,837	167,105	3.42	0.13	0.44
1947	48,177	169,871	3.53	- -	- -
1948	46,774	162,168	3.48	0.10	0.35
1949	46,230	154,616	3.35	0.08	0.27
1950	42,107	- -	- -	0.08	-
1951	43,203	- -	—	0.08	- -
1952	41,244	110,138	2.67	0.08	0.20
1953	40,528	101,220	2.50	0.07	0.18
1954	42,728	117,262	2.74	0.07	0.17
1955	39,520	125,581	3.16	0.06	0.16
1956	39,634	117,093	2.87	0.06	0.17
1957	37,752	105,346	2.79	0.05	0.14
1958	38,132	110,405	2.89	0.05	0.14
1959	28,895	100,581	3.50	0.04	0.13
1960	34,438	107,017	3.18	0.04	0.13
1961	42,300	144,869	3.34	0.05	0.18
1962	44,708	148,546	3.32	0.05	0.14
1963	47,217	160,042	3.38	0.04	0.13
1964	48,716	167,423	3.43	0.04	0.14
1965	51,052	203,164	3.98	0.04	0.16

註：① 運搬船包含 ②1964年은 南韓臨海七道의 推計 ③ 水產人口는 漁業 및 養殖業人口.

資料：韓銀, 朝鮮經濟年報 1948, 同, 經濟年鑑 1957 水產廳, 水產統計年報, 1965에서 作成.

1) 1944년은 남한 임해 7도의 어선 43,747척에 1933~37년 평균에 의한 유발선 4,770척을 합한 수자임. 조선은행, 경제연보 1948, 참고.

선의 대형화현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해방후 20년, 그간에 이렇다할 어선의 증가가 눈에 띄우지 않음은 어떠한 이유일가. 물론 궁극적인 원인은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후진성과 정체성에 구해야할 것이지만 어선의 성장이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보다도 더욱 떨어진것은 1) 수산업내부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성장을 主導할 자본의 축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爲政當局의 미온적인 수산업대책, 2) 타산업에서 찾아보기 힘든 심한 천재지변의 피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6·25동란은 타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산업부문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거니와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선의 유실과 파괴수는 당시 총어선의 1할을 넘는 4,721척(동력선 294척, 무동력선 4,427척)[1]에 달했던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커다란 손실은 1955년의 태풍 7호와 1959년의 태풍 사라호에 의해서였다. 특히 후자 사라호에 의한 피해는 막대하여 어선의 파괴만도 만여척으로서 그간에 어선이 증가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된다. 1961년이후는 표4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년년 4%여의 착실한 양적성장을 가져오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한국수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어선의 절대수는 적고 취업자의 일인당 척수는 微少하여 자본장비율의 영세·저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表 4〉 水產用船舶의 成長率

年度	隻數	成長率	噸數	成長率
	隻		₩	
1961	42,300	100	144,869	100
1962	44,708	105.7	148,546	102.5
1963	47,217	111.6	160,042	110.4
1964	48,716	115.0	167,423	115.5
1965	51,052	120.7	203,164	140.9

資料：水產統計年報 1964, 1965.

나음에는 質的 側面에서 漁船勢力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洞遊하는 어군을 좇아 어장을 외연적으로 확장하여 장기어로에 종사케 하기 위하여는 배가 크고 빨라야 한다. 즉 어선은 동력(기계)화되어야 하고 척당 평균톤수가

〈表 5〉 水產用船舶의 動力化率의 推移

年度	總漁船(A)	無動力船(B)				動力船(C)			
		隻數	噸數	隻當噸數	B/A	隻數	噸數	隻當噸數	C/A
	隻	隻	₩	₩	%	隻	₩	₩	%
1946	48,837				95.64				4.36
1954	42,728	38,983	78,530	2.01	91.2	3,745	38,732	10.34	8.8
1955	39,520	35,378	73,233	2.07	89.5	4,141	52,348	12.64	10.5
1956	39,634	35,011	64,155	1.83	88.3	4,624	52,937	11.45	11.7
1957	37,752	33,154	53,105	1.60	87.8	4,598	52.241	11.36	12.2
1958	38,132	32,241	48,390	1.50	84.6	5,891	62,015	10.53	15.4
1959	28,895	24,913	48,365	1.94	86.2	3,978	52,216	13.13	13.8
1960	34,438	30,089	49,238	1.64	87.4	4,349	57,979	13.33	12.6
1961	42,300	37,285	79,412	2.05	88.1	5,015	65,457	13.05	11.9
1962	44,708	39,005	76,316	1.96	87.5	5,703	72,229	12.67	12.5
1963	47,271	41,110	79,706.61	1.94	87.0	6,107	80,335.92	13.15	13.0
1964	48,716	42,253	80,908.71	1.91	86.7	6,463	86,514.29	13.39	13.3
1965	51,052	43,480	83,648.91	1.92	85.2	7,572	119,515.43	15.78	14.83

資料：水產廳, 水產統計年報 1964, 1965에서 作成.

1) 한국은행, 경제년감 1957, 참고.

높아야 한다. 그러면 먼저 수산용선박의 동력화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산용 선박의 동력화율은 점진적인 개선상을 나타내어 1965년말현재 수산용선박의 동력화율은 14.8%로서 해방 다음해인 1946년의 4.4%에 비하여 큰 개선상을 엿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총어선의 85여%에 해당하는 43,480척이 무동력선으로서 심한 낙후성을 노정하고 있는바 이들 무동력선은 표 6에서 보는것처럼 2톤미만이 76.4% 5톤미만의 소형선박이 94%에 해당하는 40,845척으로 이들 소형무동력어선은 그들의 어로장소를 연안어장에만 국한케 하여 남획에 의한 어장의 황폐화·어장의 저생산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어선의 규모별구성을 살펴보자. 이미 표 3 및 표 5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어선의 척당평균톤수는 1965년말 현재 3.98톤으로서 이를 다시 동력선과 무동력선으로 나누어 보면 동력선은 척당평균 15.78톤이오 무동력선은 1.92톤으로 전반적인 소형화의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1946년으로 부터 1964년까지에는 다소의 기복은 있었지만 대체로 3.4톤의 선에서 한결같이 정체하고 있었으며 다만 1965년에 이르러 다소의 증가상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그간에 특히 눈에 띄우는 사실은 태풍 사라호의 내습으로 1만여척의 피해를 입은 1959년은 어선의 절대수는 28,895척으로 해방후 가장 적었으나 척당톤수에 있어서는 1965년을 제외하고선 가장 높은 3.5톤이라는 점이다. 이는 태풍의 피해가 주로 소형무동력선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順級別漁船의 구성비는 표 6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5톤미만의 소형어선이 85.6%인 43,713척, 5톤이상 50톤미만의 소·중형어선이 13.2%인 6,765척, 50톤이상의 대형어선은

〈表 6〉 **規模別 漁船의 構成**

區分 / 順級別	1961 動力船	1961 無動力船	1961 計	1961 比率(%)	1965 動力船	1965 無動力船	1965 計	1965 比率(%)
2톤미만	523	31,424	31,660	74.8	380	33,228	33,608	65.8
2—4.9					2,488	7,617	10,105	19.8
5—9.9	2,824	4,823	7,647	18.1	1,740	1,433	3,173	6.2
10—19.9	1,197	956	2,153	5.1	1,839	1,178	3,017	5.9
20—29.9	259	82	341		322	24	346	0.7
30—49.9	132	—	132	2.0	229		229	0.5
50—99.9	367	—	367		477		477	0.9
100톤미만					97		97	0.2
計	5,105	37,285	42,300	100.0	7,572	43,480	51,052	100.0

資料：1961年은 農林部 水產局, 1965年은 水產統計年報 1965.

1.1%인 574척인바 대부분의 어선이 朝出暮歸的인 연안어장에서만이 조업할 수 있는 소형어선이오 원양어장에 진출할 수 있는 50톤이상의 어선은 겨우 1.1%로서 이는 한국어업세력의 脆弱性을 더욱 一目瞭然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어업세력을 대표하는 어선의 구조를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거니와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첫째 量的으로 근소하여 水產人口 一人當平均 保有隻數 0.04척(保有噸數 0.16톤)이라는 漁業裝備率의 低位性과 零細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質的으로도 小型無動力船 위주의 脆弱性 내지 原始性을 示顯하고 있다 하겠다.

2. 漁 場 構 成

수산업생산에 있어서 어선에 못지 않게 중요한 생산요소는 어장이다. 어장은 수산활동이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던가 혹은 이루어질 수 있는 특정 水界部分을 지칭하거니와 그것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은 기술·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진 水界部分에 성립한다.

이와같이 어장은 기술적 및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거니와 따라서 그것은 기술적·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기도 하고 반대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경향은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어장은 확대일로에 있는바 그 과정은 內水面·沿岸漁場→近海漁場→內水面·沿岸漁場에 있어서의 特殊的인 養殖場→遠洋漁場→深海漁場→淺海漁場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養殖場(淺海增殖場)의 순서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면 한국의 어장구성 및 확장단계는 어떠할가. 다음 표 7은 1964년의 어장이용면에서 본 어업별어획고 및 그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거니와 거기서 쉽게 알 수 있는바는 연안어장이 어획량의 50% 어획액의 53%로서 가장 많고 다음 근해어장이 각각 40% 35%로서 次位 그리고 원양어장은 10% 12%로서 가장 微少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수산업의 발전

〈表 7〉 **漁場利用面에서 본 漁業別 漁獲高** (1964)

漁 業 別	漁獲量 M/T	比 率 %	漁獲額 千원	比 率 %
遠 洋 漁 業	54,562	10	1,497,940	12
近 海 漁 業	206,833	40	4,306,702	35
沿 岸 漁 業	262,900	50	6,480,816	53
計	524,295	100	12,285,498	100

資料：水產局, 水產統計 1964.

단계는 어장의 이용면에서 볼 때 이제 겨우 제 3·4단계에 막 들어서고 있는 느낌이 짙다.

이러한 현상은 전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어업생산수단 특히 어선의 절대량이 적고 게다가 질적으로도 영세하며 원시적인 소형무동력선 위주라는 구조적 특질의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이와같이 한국수산업의 생산구조의 다른 하나의 指標가 되는 어장이용구성은 연안 및 근해어장에의 편중상을 나타내고 있는바 연안어장은 먼저 地先水域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장의 外延的 확장으로서 生産力을 높인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漁具·漁法등 생산기술의 개량을 통한 생산력증대나 혹은 그곳에서의 可用資源의 人爲的 육성을 통한 단위 생산성의 증가를 꾀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前者 즉 漁具·漁法등 생산기술의 개량을 통한 생산력 증대방안은 일정한 한도 이상으론 可期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산자원 특히 어획의 대상자원은 森林 牧草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再生産法則을 갖는 이른바 自律更新的인 자원이다.[1] 따라서 만일 年年의 자원의 이용도(어획도)가 자연적 증가도와 동일하면 자원의 영속적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도가 자원의 更新可能度를 초과하게 되면 자원량의 소모를 가져와 어업자원의 再生産構造가 파괴되어 어획량의 절대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안어장에서의 생산력의 상승은 可用資源의 人爲的 육성 즉 양·증식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표 8이 말해주고 있는바와 같이 한국의 양식고는 미약하며 (1964년의 양식고는 72,924M/T, 1,252,759천원으로 당년 연안어획고의 각각 28%, 20%에 불과함) 특히 어류의 증식은 全無狀態에 가까웁다.

1) 平澤豊：漁業生産의 發展構造 pp. 34~35.

한편 우리나라 총어획량의 40%를 점하는 근해어장은 대부분이 韓日 양국의 共同規制水域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치열한 어로경쟁이 불가피하여 漁獲·單位生産力의 低下

〈表 8〉 種 類 別 養 殖 高 (1965)

種 類	收穫量 M/T	比 率 %	收穫額 千원	比 率 %
貝 類	61,059	82.8	1,351,983	43.71
海 藻 類	12,616	16.8	1,739,556	0.04
魚 類	30	0.4	1,200	56.25
計	73,705	100.0	3,092,739	100.0

資料：水產統計年報 1965.

가 必至할 것임을 예상할 때 이와같은 沿·近海漁場에의 偏重狀이 한국수산업의 低生産力의 一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원양어장은 이제부터 한국어업이 진출해야 할 무대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총어획량의 10%밖에 占하지 못하는 微微한 상태에 놓여 있는바 이는 이웃 日本의 25%(1963년 계산)와 비교할 때 너무나 큰 格差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첨기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특히 해외어업이 1957년 인도양의 Nicobar島 근해에서 첫 시험출어를 시작한 이래 계속 신장하여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남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에 진출하고 있으며 계속 북태평양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한국수산업의 低生産性의 원인이 되는 低生産力의 實態를 어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漁船勢力의 구성과 漁場利用의 구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와같은 생산구조의 脆弱性 내지 原始性은 어업생산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가. 이하 그간의 수산생산고(어획고+양식고)와 수산업인구의 추이 및 一人當 노동생산성·어선 톤당생산성(자본생산성) 등을 살펴 봄으로써 위의 의문에 답해보기로 하자.

표 9는 1964~65년간에 있어서의 수산인구(수산제조업인구는 제외)와 수산생산고(제조고는 제외)의 推移 및 그에 따른 수산인구 一人當 생산고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1946년에 381,660명이었던 수산인구는 1965년말엔 1,276,808명으로 334.7의 성장지수를 나타내고 있음에 반하여 생산고는 304,742M/T에서 635,652M/T으로 겨우 208.5%의 성장밖에 이루지 못한 탓으로 수산인구의 一人當所得의 경향을 나타내는 일인당생산고는 1946년의 0.79M/T에서 0.5 M/T에로 漸減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기간에 수산인구는 격증하였음에 반하여 어업의 생산수단인 어선·어구 및 기타의 어업장비의 성장은 이미 보아 온바와 같이(표 3·4참고) 정돈상태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간에 수산인구가 격증한 원인은 여러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그 주요원인은 1) 해방과 6·25동란으로 인한 인구의 사회적 이동의 격증중 특히 越南人口는 대체로 沿岸漁村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월남후에도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많았었다는 점 2) 최근에는 當局의 「깊으는 어업」의 장려와 더불어 兼業人口인 양식업인구가 부쩍 늘고 있다는 점등에 있지 않을가 한다.

이상에서는 수산인구와 생산고의 對比로서 粗勞動生産性을 나타내는 一人當生産高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턴 수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수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생산성의 문제는 수산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형(型)을 이해하는데는 물론 어장이용형태연구나 수산업경영형태연구등에 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이 방면의 연구가 全無狀態에 가까웁다. 노동생산성은 대체로 投入勞動量(出漁日數×水產業從事者數)에 대한 總附加價値(乃至 生産高)의 比率을 뜻하며 자본생산성은 總漁船噸數에 대한 總附加價値(乃至 生産高)의 비율 끝으로 수산업의 자본장비율이란 수산업종사자 1人에 대한

〈表 9〉 **水產人口와 生產高의 推移**

年 度	總水產人口 A	水產人口 B	指 數	生產高 C	指 數	一人當生產高 C/B
				M/T		
1946	408,366	381,660	100.0	304,742	100.0	0.79
1947	502,231	—	—	306,248	100.5	—
1948	521,252	458,660	112.0	293,879	96.4	0.65
1949	616,366	563,040	147.5	308,488	101.2	0.55
1950	625,291	557,628	146.2	222,636	73.1	0.40
1951	584,890	537,872	140.9	279,071	91.9	0.52
1952	587,667	539,370	141.2	281,815	92.2	0.52
1953	600,017	559,032	146.5	265,624	87.0	0.48
1954	666,595	676,601	177.3	255,212	83.7	0.38
1955	678,779	624,438	163.6	265,895	87.0	0.43
1956	728,155	680,259	178.2	346,570	117.0	0.51
1957	779,630	732,135	191.8	409,310	134.3	0.56
1958	806,938	762,082	199.7	403,307	132.3	0.53
1959	789,342	754,323	197.6	392,061	128.6	0.52
1960	848,275	808,896	211.9	357,182	117.2	0.44
1961	859,025	816,817	214.0	424,434	139.2	0.52
1962	1,138,325	1,093,817	286.6	469,530	154.1	0.43
1963	1,264,150	1,224,499	320.8	466,761	153.2	0.38
1964	1,245,061	1,210,991	317.3	597,219	198.3	0.49
1965	1,314,430	1,276,808	334.7	635,652	208.5	0.50

註：總水產人口는 製造業을 包含, 餘他係數는 모두 製造業除外.
資料：1946～60年은 農業年鑑, 1961, 1961～64年은 同 1965, 1965年은 水產統計年報 1965.

漁船 총톤수의 비율을 각각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선 우리나라의 업종별 年平均出漁日數를 알아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편의상 수산업종사자에 대한 수산생산고의 비율로써 수산업의(物量) 勞動生產性을 나타내보기로 하면 표 10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1962～5년간에 있어서의 평균노동생산성은 1.2M/T인바

〈表 10〉 **水產業의 勞動生產性**

年 度	生產高 M/T			從事者名			一人當生產高(勞動產性) M/T
	漁 業	養殖業	合 計	漁 業	養殖業	合 計	
1962	451,384	18,146	469,530	261,391	201,134	462,525	1.0
1963	444,271	22,490	466,761	309,680	205,687	515,367	0.9
1964	524,295	72,924	597,219	325,924	203,856	529,780	1.1
1965	561,947	73,705	635,652	343,124	203,270	546,394	1.9

資料：水產統計年報 1962, 63, 64, 65에서 作成.

1958년 주요국의 어업종사자의 1人當 어획고가 최고 西獨의 64.1M/T에서 최저 日本의 7.8M/T, 보편적으로 10M/T을 초과하고 있음과[1] 비교할 때 너무도 큰 격차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1) 水產社刊, 水產年鑑 1962. p. 809.

한편 표 11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자본생산성도 상기 4개년 평균 3.2M₩으로서 지극히 낮으며 자본장비율 역시 0.35₩으로 극히 영세한바 이는 곧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어업생산수단의 脆弱性 및 어장구조에 있어서의 落後性의 결과이며 동시에 어민들의 저소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表 11〉 水產業의 資本生產性 및 資本裝備率

年度	生產高 (M₩)			從事者 (名)			總漁船噸數 (₩)	資本生產性 (M₩)	資本裝備率 (M₩)
	漁業	養殖業	合計	漁業	養殖業	合計			
1962	451,384	18,146	469,530	261,391	201,134	462,525	148,546	3.1	0.32
1963	444,272	22,490	466,761	309,680	205,687	515,367	160,042	3.2	0.37
1964	524,295	72,924	597,219	325,924	203,856	529,780	167,423	3.6	0.32
1965	561,947	73,705	635,652	343,124	203,270	546,394	203,164	3.1	0.38

資料：水產統計年報 1962, 63, 64, 65에서 作成.

Ⅲ. 韓國水產業의 階層·經營構造

前章에서 우리들은 한국수산업의 低生產力 내지 低生產性의 원인이 되는 수산업의 생산구조의 영세·원시성을 어업생산에 있어서 資本的 要素의 대표가 되는 어선세력의 구조와 自然的 要素인 어장의 이용구성면에서 살펴 보았다. 本章에선 階層構造 및 經營構造를 살펴봄으로써 더욱 이점을 천착해보고자 한다.

한국수산업의 계층·경영구조의 기본적 특징은 大規模資本制漁業과 小商品生產的 零細漁業을 양극으로 하여 그 사이에 그 규모와 발전도를 달리하는 各樣의 中小漁業을 포용하는 重層的·立體的 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는바 이는 같은 제1차산업인 농업이 家族勞作的 零細農業을 주축으로 하는 單層·平面構造를 이루고 있음과 대조적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수산업의 계층·경영구조를 파악키 위한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를 이용할 수 없지만 다음에 인용한 두 表는 그런대로 한국수산업의 계층 및 경영구조의 기본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표 12는 1958년 당시의 水產局 中央試驗場에서 실시한 어업별착업통수 및 어획고조사인바 오늘날에 있어서는 大資本漁業으로서 점차 지위를 쌓고 있는 '새우트롤'어업 및 해외 원양어업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들이 알고자 하는 階層構造把握에는 결함이 큰 것이나 대체적인 경향에는 별격차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바는 1) 우리들이 이미 序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어업의 계층구조가 4階의 重層構造를 이루고 있다는 점 (2) 그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근대적 자본제어업으로 발달한 어업종목인 機船底引網 및 機船巾着網漁業은 單位當生產性(톤당어획고)이 높아서 두 어업의 착업통수는 총착업통수의 부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획고에 있어서는 20여%를 占하고 있는 반면 주로 가족노동을 위주로 하는 영세어업 및 양식업등은 수적으론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어획고에 있어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즉 다음 표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수산업의 경영형태는 단위생산성이 낮은 영세어가어업이 집중적으로 많으며 표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들 영세어가는 生漁生農的인 兼業農가 많다는데 구조적 후진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표 13은 1966년 2월,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表 12〉 **漁業別 着業統數 및 漁獲高(1958)**

調査區分	選定公表漁業番號	選定公表漁業名	年間着業統數	航海數	一航海當平均業獲量 (kg)	一統當平均漁獲量 (kg)	總漁獲量 352,619,760 kg	千分比
指	1	機船底引網①	129	10,791	3,841	321,328	41,450,102	117.5%
		②	82	317	27,037	104,524	8,570,928	24.3
定	2	機船巾着網①	7	249	34,334	1,221,307	8,549,154	24.2
		②	18	562	31,580	985,998	17,747,961	50.3
		운반선※	354	507	8,428	12,070	4,272,911	12.1
漁	3	鮫鰐網	1,178	10,647	2,286	20,664	24,342,199	69.0
	4	打瀨網	193	6,134	863	27,434	5,294,232	15.0
業	5	流網	602	22,062	1,128	41,325	24,877,728	70.6
	6	상어延繩	275	9,778	412	14,645	40,272,286	11.4
	7	大型定置網	483	89,554	303	56,195	27,142,219	77.0
A	8	小型定置網	868	119,462	122	16,825	14,603,822	41.4
級	9	船引網	245	24,778	1,126	113,857	27,894,918	79.1
	10	刺網	542	24,827	206	9,448	5,121,060	14.5
漁	11	명태延繩	2,014	230,422	175	17,785	35,819,500	101.6
	12	오징어一本釣	2,841	81,220	401	11,465	32,572,272	92.4
業	13	潛水器	189	16,107	224	19,118	3,613,266	10.2
	14	其他延繩	2,997	224,237	54	4,027	12,070,180	34.2
	15	其他一本釣	1,599	160,902	24	2,366	3,783,925	10.7
B	16	敷網	329	35,369	133	14,316	4,709,890	13.4
	17	揚操網	59	4,584	238	18,523	1,092,831	3.1
級	18	手操網	1,468	124,417	38	3,215	4,719,252	13.4
	19	裸潛	11,621	1,414,284	13	1,619	18,815,846	53.4
漁	20	捕具	6,309	296,979	13	622	3,922,033	11.1
	21	採藻	6,277	141,630	55	1,248	7,833,908	22.2
業	22	蛸壺	219	11,645	61	3,222	705,662	2.0
	23	地引網	125	11,937	150	14,299	1,787,407	5.1
	24	새우漕網	155	2,267	72	1,050	162,754	0.5
C	25	捕鯨	28	1,389	947	48,371	1,315,438	3.7
	26	空釣	5	16	18	57	284	0.001
級	27	鰻搔	15	1,260	8	659	9,891	0.03
	28	海苔養殖	9,079	187,325	6	114	1,030,779	2.9
漁	29	굴養殖	4,462	96,386	7	141	628,771	1.8
業	30	其他漁業	2,545	81,886	50	1,623	4,130,851	11.7

資料：海務廳 水產局 中央試驗場，水產資源調査報告，第3號 別冊 朴九秉，韓國水產業의 構造的 特質과 그 問題點에서 再引用.

지구별 조합원의 경제실태조사중 지구별 조합원이 종사하는 어업종별을 분류·집계해 본것이다. 본자료를 우리들의 계층구조 파악을 위해서 이용하는데는 두가지의 難點 즉 1) 지구별 조합원은 전 어가호수(어업경영체)의 52.6%에 불과한바 남어지 47.4%의 어가호수 중에

는 大資本制漁業經營에 종사하는 각종 업종별조합원중 지구별조합에의 非加入者와 전연 아무런 조합에도 가입돼 있지 않는 영세어가들이 포함되므로 전체 어가(경영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 2) 단순히 어업의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鮫鰆網어업이라든지 定置網어업등에는 전혀 계층을 달리하는 大·小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가 간과되어 있다는 점등의 難點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큰 부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 자료에 의한 지구별 조합원의 경영체총수는[1] 110,893인바 이를 먼저 資本制어업과 小

〈表 13〉 **地區別 水協組合員의 從事漁業** (1966. 2)

	漁業의 種類	經營體數	比率(%)		漁業의 種類	經營體數	比率(%)
大資本漁業	機船底引網	295		漁家漁業	三角網	509	
	機船旋網	54			八角網	4	
	새우트롤	5			落網	42	
	大敷網	24			小台網	428	
	權現網	554			竹防簾	139	
	捕鯨	12			壺網	250	
	大謀網	98			蠶張網	61	
	小計	1,042	1.0		柱木網	193	
中小資本漁業	鮫鰆網	1,989			四艘張網	113	
	潛水器	257			設網	164	
	機船一本釣	85			建干網	719	
	船引網	697			打瀨網	171	
	定置網	598			採藻	11,253	
	流網	2,857			捕貝	4,304	
	刺網	11,096			地引網	406	
	活鮮魚運搬	204			地漕網	1	
	小計	18,942	17.0		焚寄抄網	424	
小商品生產的漁業	裸潛	7,967			들網	61	
	海藻採取	1,193			揮羅網	21	
	養殖	36,076			魚筌	57	
	手繰網	1,817			覗突	177	
	石網網	198			蛸壺	603	
	揚繰網	137			繩網	242	
	一本釣	12,196			기타延繩	7,534	
	角網	1			기타	3,430	
	桝網	18			小計	90,909	82.0

資料：水協中央會, 漁業實態調査 第1輯에서 作成.

商品生產的 漁家어업으로 二大別 한 뒤 資本制어업을 다시 大資本어업과 中小資本어업으로 細分하여 모두 세 계층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총경영체 110,893업체중 大資本어업에 속하는 機船底引網등 6종의 어업은 1,042업체로 전체의 1%약에 불과한 반면 안강망어업등

1) 濟州道를 제외하곤 一家口 一組合員主義이므로 一組合員=一經營體로 보아도 큰 착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종의 中小資本어업은 18,942업체로서 17%강 그리고 捕貝·採藻등 小商品生産的 漁家어업은 전 어업경영체의 82%약에 상당하는 90,909업체나 되었다. 이는 한국수산업의 經營階層構造의 복잡성과 아울러 支配的인 경영계층이 小商品生産的 漁家어업이라는 영세성을 단적으로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非組合員의 殆半이 조합원들보다 일반적으로 경제상태가 빈곤하고 그 경영형태가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수산업의 계층·경영구조의 영세성은 더욱 加重될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현상은 경영형태별 수산인구 및 호구의 구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음 표14은 專·兼業水産人口의 구성과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表 14〉 **經營形態別 水產人口構成**

年度	總人口	專業		兼業		被傭者	
		人口	比率	人口	比率	人口	比率
	名	千名	%	千名	%	千名	%
1953	600,017	160	26.1	297	49.6	143	23.8
1954	666,595	198	28.5	296	42.5	202	29.0
1955	678,779	184	27.2	343	50.5	151	22.3
1956	728,155	181	24.9	381	52.3	166	22.8
1957	779,630	173	22.2	377	48.3	230	29.5
1958	806,938	184	22.8	382	47.3	241	29.9
1959	789,342	228,137名	28.9	361,251名	45.8	199,954名	25.3
1960	848,275	178,054	20.9	401,359	47.4	168,862	31.7
1961	859,025	238,829	27.8	436,091	50.8	184,105	21.4
1962	1,138,325	235,408	20.7	686,460	60.3	216,457	19.0
1963	1,264,150	290,153	22.9	710,073	56.2	263,924	20.9
1964	1,245,061	287,032	22.9	703,117	56.6	254,912	20.5
1965	1,314,430	292,627	22.3	722,796	55.0	299,007	22.7

資料：1953~58年 農業年鑑 1959, 59~64年 同 1965, 65年 水產統計年報 1965.

동표에 의하면 1965년의 전업인구는 피용자보다도 적은 22.3%인데 반하여 겸업인구는 55%로서 折半이상을 占하고 있다. 겸업인구는 전반적으로 연안 어촌의 半農半漁的인 영세경영인바 이는 표 13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계층구조에 있어서 영세한 어가어업이 지배적인 비중을 占하고 있는 사실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영세경영인 겸업어가가 근자에 이르러 漸增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선 겸업어가가 많은 由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지면관계로 할애하겠거니와 그것은 해방후의 급속적인 수산인구의 증가에 따르지 못한 수산업부문에 있어서의 資本의 蓋積 및 投下의 劣弱과 영세경영을 유지 온존시키기에 알맞는 沿岸漁業의 漁業權制度가 그 중요이유가 아닌가 한다. 해방후의 수산인구의 증가율을 별견해 본다면 1946년을 100으로 한 1965년말 현재의 성장지수는 322.4[1]로서 이는 年平均增加率 6.3%인바 전체인구 성장율 2.8%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안의 漁業權은 일부 大型定置網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共同漁業權인바 이는 漁村契라는 사실상의 漁村共同體에 의해서 入會制度를 통해 行使됨으로써 영세경영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수산업의 계층·경영구조는 한마디로 요약해볼 때 重層的·立體的이라는

1) Ⅱ.—2. 표9의 334.7과 다름은 수산제조업 인구를 포함한 때문임.

점과 이러한 중층적 구조중 小商品生産的 零細漁家어업이 지배적 위치를 占하고 있는바 이들 영세어가들의 경영형태는 연안의 半農半漁的인 兼業經營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계층·경영구조의 영세성 및 낙후성은 생산구조의 脆弱性 및 原始性과 照應하여 수산업의 低生産力의 要因이 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이와같은 계층·경영구조의 영세성과 낙후성은 어업경영체의 경영실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 다음 표는 역시 1966년 2월 현재 水協中央會가 지구별 조합원의 경제실태를 추계한 자료에서 추출해 본 어가들의 경영실태이다.

표 15는 조합원(경영체)을 A 上位漁業을 경영할 수 있는 자 즉 擴大再生産이 가능한 자

〈表 15〉 **地區別 水協組合員의 經營實態**(推計) (1966. 2.)

區分 / 支部別	A	B	C	D	計
京畿支部	847	3,022	1,911	312	6,092
忠南 〃	281	1,621	1,035	550	3,487
全北 〃	229	568	339	189	1,325
全西 〃	3,175	11,648	6,169	1,866	22,858
全東 〃	3,779	10,543	6,283	2,502	23,107
慶北 〃	1,112	5,052	4,732	1,573	12,469
慶南 〃	2,777	7,198	7,116	3,147	20,238
江原 〃	384	2,986	2,553	804	6,727
濟州 〃	723	5,884	3,240	594	10,446
合計	13,312	48,522	33,378	11,537	106,749
比率(%)	12.3	45.5	31.3	10.9	100.0

註：A(上位漁業을 經營할 수 있는者. B(現狀을 維持할 수 있는 者). C(現狀維持가 힘드는 者). D(轉業 및 廢業이 不可避한 者).
資料：水協中央會, 漁業實態調査, 第1輯.

B 現狀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즉 單純再生産이 가능한 자 C 現狀유지가 힘드는 자 즉 縮少再生産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및 D 轉業 및 廢業이 불가피한 자 즉 어업경영의 再生産자체가 불가능한 자로 4等分한 결과 A급 경영체는 전 경영체의 12.3%임에 反하여 單純再生産밖에 불가능한 B급 경영체는 45.5%이며 더욱 縮少再生産 및 再生産자체가 불가능한 경영체가 42.2%라는 多數를 占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어가의 빈곤상과 수산업의 경영구조의 영세성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Ⅳ. 韓國水産業의 流通構造

위에서 우리들은 生産構造의 특질분석을 통해 低生産力과 低所得의 요인을 살펴보았거니와 본장에선 流通構造의 분석을 통해 또 다시 어민의 低所得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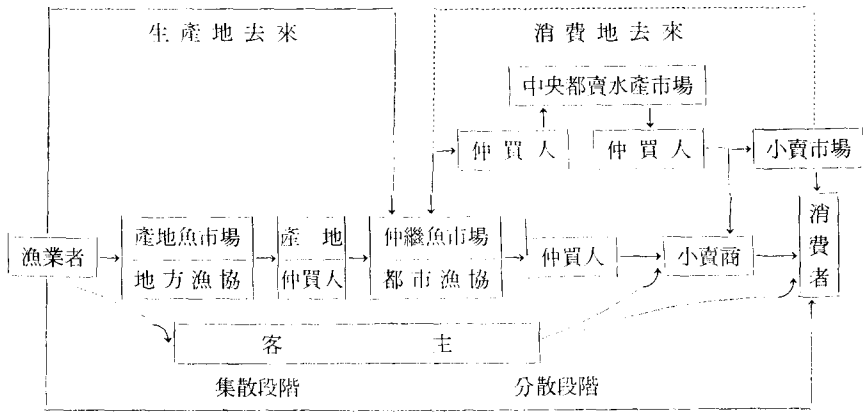
무릇 제1차산업의 생산품은 애써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유통구조 내지 유통과정의 不合理性으로 말미암아 적정가격을 유지하지 못하여 생산자의 저소득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 허다하거니와 특히 수산물은 아래와 같은 특질때문에 他의 원시산품 즉 농산물보다도 더욱 그러한 점이 크다. 한국에 있어서의 수산물의 유통상의 특질은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그 하나는 어업생산의 不安定性과 複合性 경영구조의 重層性때문에 수산물의 표준화가 어렵고 따라서 유통과정을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점 다른 하나는 수산물은 농

산물과 달리 自家消費보다는 본래 商品化率이 높은 食品이나 그 성질이 부패·변질하기 쉬워 즉 商品適性이 낮아 그 취급을 신중·소중하게 하여야 하며 이로말미암아 保管·輸送·處理利用施設이 복잡하여 유통비용이 크다는 점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限 유통과정이 合理化(直線化)되어야 함과 아울러 유통구조가 單元·系統化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수산업의 유통구조와 유통과정은 어떠할가.

1. 流通構造의 複合·多元性

한국수산업의 유통구조의 특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複合性과 多元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수산물이 물에서 건져져서 소비자의 食卓에 오르기까지의 경로는 어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마는 그 유통구조는 다음 도식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1) 前期的 客主制度 (2) 生產地와 消費地를 연결하는 漁協의 共販制度 (3) 生產地의 漁協과 消費地의 中央都賣水產市場으로 연결되는 共販制度의 三元構造중의 어느하나를 택하도록 되어있다.

水產物의 流通構造 및 經路



客主란 본래 客商主人이라는 뜻에서 온 말로서[1] 그 起源은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李朝이래 한국의 유통과정 특히 수산물의 유통과정을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해 온 기관으로서 그들은 상품의 賣買와 동시에 창고업 위탁판매업 운송업 은행업 여숙업등의 기능을 겸영하면서 이른바 先貸制의 그물을 통해 어민들의 생산물을 독점적으로 買收·販賣과 정을 專擔하여 생산자인 어민들을 유통과정에서 완전히 차단하므로서 갖은 수탈을 자행해왔으며 또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客主의 수탈행위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客主의 손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위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수산물은 극히 부패·변질하기 쉬운 非耐久性 商品이므로 신속히 販賣·處理되지 않으면 아니 되며 둘째 에나 지금이나 한국수산업은 주로 영세어가들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는바 그들은 (1) 不安定的인 생산을 지탱할만큼 충분한 자본의 축적이 없고 (2) 市場事情에 어두우며 (3) 그들의 경영의 영세성에 反한 流通施設등의 비용의 過多로 말미암아 직접 유통과정에 개입함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점등이다. 이리하여 客主制度는 李朝末에 그 絶頂에 달한 이래 그들의 자본력과 길드적 조직을 가지고 여전히 기생하여 생산지 및 소비지에서 漁協과 中央都賣水產市場의 共販制度와 함께 유통구조의 일익을 담

1) 朝鮮總督府編, 調査資料 第11輯, 朝鮮人의 商業 p. 67 참고.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오늘날 客主制度에 의하여 취급되는 수산물의 양과 그 비율은 얼마나 될것인가. 정확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이 유감스러우나 다음 표 16에 의하여 대체적인 경향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964년의 위판고는 283,648M/T으로 당년 총어획고 524,295M/T에 대하여 54.1%이며 1965년의 그것은 56.1%이다. 따라서 남어지 45.9%와 43.9%의 수산물은 共販

〈表 16〉 **漁獲高와 委販高의 比較**

年度	漁獲高		委販高		委販率
	數量 (A)	金額	數量 (B)	金額	B/A (%)
	M/T	千원	M/T	千원	
1964	524,295	12,285,498	283,684	7,019,940	54.1
1965	561,947	16,618,061	308,510	11,248,119	56.1

※ 1965年 委販高는 推計임.

資料：水產統計年報 1964, 65에서 作成.

制度이외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유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수량 전부가 客主의 손에 의해서 유통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보아 큰 差가 없을 것이고 보면 아직도 한국 어획물의 4할강이 객주라는 前近代的인 유통기구를 통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에는 漁協 및 中央都賣水產市場의 共販制度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에 있어서 수산물의 경매에 의한 共同委託販賣制度 즉 魚市場이 형성된 것은 1928년「조선총독부령」제136호로서 市場規則이 발포된 후의 일이다. 동시에 이로부터 客主制度와 共販制度間의 분규는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후 1952년에 제정된 中央都賣市場에 의하여 도시에서 中央都賣水產市場이 개발되자 어민위주의 漁組共販場과 소비자를 위한 都賣水產市場 및 客主라는 三元的 流通構造가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중앙도매수산시장이 설립목적에서 명시된 公益性을 무시하고 一都賣一市場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친 영리추구를 자행한데서 系統出荷組織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간격을 좁혀 適正魚價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水協共販市場의 消費地(도시)進出이 모색 오늘날 많은 분규를 거듭하면서 中央都賣水產市場과 併立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산업의 유통구조는 多元的이오 複合的이어서 다음의 유통경로의 迂廻性·不合理性과 결들여 중간경비를 비대케하고 中間收奪을 많게 하여 어민들의 소득을 더욱 低下시키는 一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流通經路의 迂廻·不合理性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산물 유통경로는 너무나도 迂廻的이고 유통시설과 기술은 前近代的이어서 필요이상의 유통비용의 肥大와 수산물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例示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산물의 유통경로는 직선화되지 못하고 孤線코스를 취하는바 그간에 介在하는 다수의 魚商들로하여금 이윤추구에 汲汲하게 하는 남어지 과다한 配給費가 첨가되어 生產者는 생산비이하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부당한 高價로 사야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 남해의 도미[1] (조사일, 1964년 9월 30일)

1. 유통경로

1) 李鍾禮：韓國水產業의 流通構造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經濟問題硏究會,「韓國水產業近代化의 方案과 諸問題所收) p. 136.

생산자——어협——산지 중매인——중앙도매 수산시장——소비지 중매인——어상——소매인——소비자

객주——산지객주——소비지객주

2. 어 가

생산지가격 : 중형어평균 6원—10원

서울소비지가격 : 상동 25원—35원

(주) 소비지에서 판매되는 인반적 도미의 선도는 화식집 膳食用정도의 좋은 선도가 않임.

다음 표 17 및 표 18은 1964년도 주요어항(생산지) 및 소비지의 1次 도매가격을 나타내고

〈表 17〉 主要漁港水產物 一次都賣價格 (1964年, 單位 : kg當원)

漁港 \ 月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平均
仁 川					44	32	31	37	36	38	44	36	37
長 項	21	31	57	32	25	27	25	34	34	34	40	27	32
群 山	41	23	35	33	30	33	34	36	35	37	34	34	34
木 浦	21	63	39		18	15	15	21	20	22	24	23	26
麗 水	40	40	26	59	20	24	19	26	22	38	47	41	33
三千浦	26	30	19	21	15	21	26	23	31	35	38	31	27
統 營	22	21	20	19	14	13	18	22	30	34	32	29	23
馬 山	32	29	25	25	16	19	24	26	27	33	38	26	27
釜 山	44	26	23	24	21	27	24	27	28	30	33	29	28
九龍浦	13	16	24	17	15	14	17	54	10	22	26	15	20
浦 項	15	19	21	17	13	14	28	18	9	12	22	37	19
三 陟					13	17		8	9	17	20	18	14
墨 湖	33	29	24	29	11	17	19	10	8	17	14	28	19
注文津					5	13	6	12			34	18	15
束 草					6	14	20		11	16	53		20
濟 州					15	7	15	5	10	37	57	11	21

資料 : 李永吉, 水產物流通現況.

있다. 이에 의하면 주요 어항의 1964년도 평균도매가격은 kg당 24원68전이었음에 反하여 주요소비도시의 당년 도매가격은 kg당 42원 66전으로 생산지가의 근 2배로 거래되고 있는바 소비지 도매가격 42원 66전중에는 생산지가의 43%에 해당하는 10원 60전의 중간경비와 산지값의 29%에 해당하는 7원 36전의 중간상인 이윤이 포함되고 있으며[1] 특히 중간경비중에는 운임의 27%나 되는 중매인 및 시장수수료가 포함되고 있다[2] 하니 유통경로의 迂廻性과 그

〈表 18〉 主要都市水產物 一次都賣價格 (1964, 單位 : kg當원)

都市 \ 月別	1	2	3	4	5	6	7	8	9	10	11	12	平均
서 울	34	45	40	38	35	38	44	46	43	47	53	46	
大 邱	29	40	26	25	27	34	32	31	28	35	52	41	
全 州	26	43	64	75	63	54	57	49	52	54			
平 均	30	43	43	46	41	42	44	42	41	45	52	43	42.66

資料 : 李吉永, 上揭書.

1) 李鍾禮 : 上揭論文, p. 127 참고.

2) 李永吉 : 水產物의 流通現況, 참고.

로 말미암아 그간에 介在하는 魚商들때문에 어민들과 소비자가 얼마나 크게 수탈당하고 동시에 어민들의 低所得의 原因이 어디 있는가가 뚜렷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V. 要 約

이상에서 우리들은 한국수산업의 특질인 低生産力 및 低所得이 그 자연적 여건의 不適 내지 빈곤에서 由源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그 인위적 여건 특히 수산업의 구조적 특질의 반증임을 분석해 보았거니와 이제 그 요지를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은 三面環海의 반도로서 26,0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약 50만km^2에 달하는 大陸棚面積 알맞은 水溫과 적절한 조류의 교차로서 大陸棚漁場과 동시에 潮境漁場이 형성되어 거기에 어류 854종 패류·문어등 軟體類 1,000종 새우 게등 甲殼類 약 300종 해조류 약 400종에 달하는 풍부한 수산자원이 서식하고 있어서 한국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연적 여건은 天惠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은 어떠하였는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微微하고 정체적이었다. 開港以前에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과정상의 沈滯性때문이오 開港以後 발전의 모색기에는 日人이 韓海漁業의 주도권을 장악하므로써 한국어민을 영원히 自家消費的인 영세어가어업에 머물게 한데 그 主因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결과 오늘에 있어서도 한국수산업은 低生産力과 低所得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질은 아래와 같은 구조적인 諸缺陷에 起因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산업의 구조분석의 필요와 의의가 있다.

한국수산업의 생산구조의 특질은 1) 어업생산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어선이 첫째 量的으로 근소하여 1965년말 현재 水産用船舶의 총수는 51,052척에 203,164톤으로서 해방 익년인 1946년에 비해 겨우 4.5%의 성장에 불과한바 이는 그간의 수산인구의 증가율 234.5%에 크게 미달하여 수산인구 1인당 척수와 톤수는 오히려 줄어들어 각각 0.04척 0.16톤이라는 심한 零細性과 脆弱性을 나타내고 있으며 둘째 質的으로도 小型·無動力船이 지배적인 영세성과 원시성을 나타내고 있는바 총어선 51,052척중 동력선은 14.82%인 7,572척임에 反하여 무동력어선은 85.17%인 43,480척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편 한국 어선의 척당 평균톤수는 3.98톤이라는 小型漁船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噸級別 어선의 구성비면에서 좀더 살펴본다면 5톤미만의 소형어선은 전 어선의 85.6%인 43,713척, 5톤~20톤 미만의 소·중형어선은 12.1%인 6,190척 20톤~05톤이상의 중형어선은 1.2%인 675척임에 반하여 50톤이상의 중·대형어선은 겨우 1.1%인 574척에 불과하다. 이 밖의 어업생산수단인 어구 및 장비에 있어서도 기계화의 度는 극히 微弱하여 한국어업의 활동무대는 자연 沿岸漁場에만 蝟集케함으로써 남획·생산성저하라는 현상을 自招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상과 같은 어업생산세력구조상에 있어서의 영세성과 취약성 및 원시성은 어업생산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어장의 구성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것은 1964년의 어장이용면에서 본 어업별 어획고의 구성비에 단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즉 1964년 총어획고 524,295톤중 연안어업은 50%인 262,900톤임에 반하여 원양어업은 10%강인 54,562톤에 불과하며 한편 양식고는 73,705톤으로 당년 연안어획고의 28%강에 불과한바 이는 어업의 발달과 더불어 어장이용의 방향은 대체로 연안→근해→원양에로 확대됨과 아울러 단순한 「採捕漁場」에서 「養殖漁場」에로 확장·심화됨으로써 단위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측면에서도 역시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 수산업의 계층·경영구조의 특질은 어떠할가. 그것은 1) 大規模資本制어업과 小商品生産的 영세어업을 양극으로 하여 그간에 그 규모와 발전도를 달리하는 각양의 中小漁業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 2) 이러한 重層的 構造중 특히 半漁半農的 兼營經營인 영세어가어업이 지배적인 비중을 占하므로서 어업의 資本制化過程에 있어서의 침체성과 어업경영의 빈곤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이와같은 立論은 1966년 2월 水協中央會가 지구별 조합원의 경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조합원(어업경영체)의 종사어업의 구성비에서 반증할 수 있는 바 동자료에 의하면 機船底引網어업등 大資本漁業은 겨우 1%약임에 반하여 捕貝·採藻등 小商品生産的 漁家漁業은 82%라는 높은 비중을 시현하고 있으며 한편 縮少再生産이 不可避하거나 어업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업체가 전 경영체의 42.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수산업의 유통구조의 특질을 개관해보자. 그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 것인가하는 문제에는 다소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일단 잡힌 고기를 어떻게 하여 유통과정에서 가치를 보존하고 所得을 증대시킬것인가에 대하여는 비교적 소홀히 해왔었다. 그런 탓으로 수산물의 유통구조는 複合·多元的이오 유통경로는 迂廻的인 現狀을 면치 못하여 生産價보다도 더 많은 중간경비와 중간이득이 첨가되어 생산자(어민)는 싸게 파나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불합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수산업의 유통구조는 前期的 客主制度와 水協 및 中央都賣水産市場의 共販制度로 三元化되고 있는바 하루 속히 客主와 그 자본을 共販市場의 仲買人 및 생산자본으로 흡수하며 系統出荷組織을 완비하므로서 유통과정에서 수탈되는 어민소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수산업은 생산구조에 있어서의 漁業勢力의 절대량 부족과 小型·無動力船 편중이라는 零細·脆弱性 및 原始性, 階層·經營構造에 있어서의 小商品生産的 零細漁家漁業 편중이라는 沈滯性 流通構造에 있어서의 複合性·多元性과 迂廻性등을 그 구조적 특질로 지니고 있는바 이러한 諸特質은 한국수산업의 生産力을 低弱하게 하고 어민의 소득을 低位에 머물도록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祝

創 立 15 周 年

韓 國 社 會 科 學 硏 究 院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院 長 兪 鎭 汐
President : Chinsok Yoo

서울特別市 鍾路區 唐珠洞 18
18 Dang-Ju-Dong Chong-Ro-Ku Seoul, Korea.
電 話 74—9856
國際私書函 (I.P.O.) 2377

<Sammary>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Fishery in Korea 1946—1965

by

Kwang-Soon Park

(Asst. Prof. Commercial College. Chonnam National Univ.)

1. Fishery is one of the important industries in Korea. It earns a lot of valuable foreign money every year. The annual exports of fishery reach 20 percent of total amount of Korean exports.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y in Korea are its low productivity and low income.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because of the unsuitableness of physical environment concerning fishery in Korea, but because of the insufficiency of man's effort to develop it. This means the structual deficiency of Korean fishery. This study is purposed to analyse the structure of Korean fishery with emphasis on its transition from 1946 to 1965.

It is a well-kown fact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fishery in Korea is very suitable for it. Our country is a peninsula surrounded by seas on three sides, having a long coast line reaching 26,000 kilometers and a very wide continental shelf amounting to about 500,000 square-kilometers. The neighbouring waters of Korea have also fitting temperature, and the tides are interchanged properly on the seas. At the same time, they contain abundant marine resources, such as fishes of about 854 species, shell fish and other mollusc fishes of about 1,000 species, and seaweeds of about 400 species. Judging from these points, we may say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fishery in Korea is a gift of nature.

On the contrary, man's effort to develop those resources had been very lukewarm and stagnant till the opening of the por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With the opening of the port Japanese fishermen advanced to the Korean seas, and they contributed somewhat to the development of fishery in Korea at the technical side. Occupying the leadership of fishing in the neighbouring waters of Korea, they made Korean fishermen fall into the external stagnation of minor scale household management.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reasons why Korean fishery has not developed continuously, and also the reason why Korean fishery has not escaped from the stagnant situation of low productivity and law income. These characteristics are due to the structural defects of

fishery mentioned as below. Here are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analysis to the structure of fishery in Korea.

2. At the first, we are going to analyze the production structure of fishery, secondly, the management structure of fishery, and lastly its circulation structure.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structure of Korea fishery are as follows; First the fishing boa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means of production of the fishery are very little quantitively. As may we see at the following Table 1, the numbers of the fishing boats including fish-carrier amounts to 51,052 vessels at the end of 1965. It does show that the percapita fishing boatsare only 0.04 vessels.

Table 1. **Transition of Fishing Boats**, 1946-65

Year	Numbers of Fishing Boats	General Tons of Fishing Boats	Ton Per Boat	Numbers Per Capita	Ton Per Capita
	Vessel	₩	₩	Vessel	₩
1944	48,517				
1946	48,837	167,105	3.42	0.13	0.44
1947	48,177	169,871	3.53	—	—
1948	46,774	162,168	3.48	0.10	0.35
1949	46,230	154,616	3.35	0.08	0.27
1950	42,107	—	—	0.08	—
1951	43,203	—	—	0.08	—
1952	41,244	110,138	2.67	0.08	0.20
1953	40,528	101,220	2.50	0.07	0.18
1954	42,728	117,262	2.74	0.07	0.17
1955	39,520	125,581	3.16	0.06	0.16
1956	39,634	117,093	2.87	0.06	0.17
1957	37,752	105,346	2.79	0.05	0.14
1958	38,132	110,405	2.89	0.05	0.14
1959	28,895	100,581	3.50	0.04	0.13
1960	34,438	107,017	3.18	0.04	0.13
1961	42,300	144,869	3.34	0.05	0.18
1962	44,708	148,546	3.32	0.05	0.14
1963	47,217	160,042	3.38	0.04	0.13
1964	48,716	167,423	3.43	0.04	0.14
1965	51,052	203,164	3.98	0.04	0.16

Source: The Bank of Korea. Bureau of Fisheri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number of fishing boats has been increased from 48,837 vessels in 1946 to 51,052 vessels in 1965. The speed and rate of growth of fishing boat is

lagging far behind the growth of fisheries population. The rate of growth of fishing boat is estimated to reach only to 4.5 percent during twenty years. On the other hand the fishery population has increased by 234.5 percent since 1946. It means that Korean fishery has been sinking year by year.

Table 2. **Composition of Fishing Boats by Type**

Type / Classification	1961 Powered Boat	1961 Non-powered Boat	1961 Total	1961 Ratio (%)	1965 Powered Boat	1965 Non-powered Boat	1965 Total	1965 Ratio (%)
0.1~ 1.9	523	31,424	31,660	74.8	380	33,228	33,608	65.8
2.0~ 4.9					2,488	7,617	10,105	19.8
5.0~ 9.9	2,824	4,823	7,647	18.1	1,740	1,433	3,173	6.2
10.0~19.9	1,197	956	2,153	5.1	1,839	1,178	3,017	5.9
20.0~29.9	259	82	341	2.0	322	24	346	0.7
30.0~49.9	132	—	132		229	—	229	0.5
50.0~99.9	367	—	367		477	—	477	0.9
100.0~					97		97	0.2
Total	5,105	37,285	42,300	100.0	7,572	43,480	51,052	100.0

Source: Bureau of Fisheri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Second the most of fishing boats are also small in scale and non-powered wooden boats. As we see at the Table 1, the average tonnge of Korean fishing boats in 1965 is only 3.98 tons. Although powered boats form 14.8 percent of all the fishing ships, most of them are made of wood. As we may see at the Table 2, the ships less than 5 tons form 85.6 percent of all the fishing boats. On the contrary, the ships more than 50 tons form only 1.1 percent of them. These prove the fact that the productive power of Korean fishery remains in low level.

In 1964, the catches by the coastal fishery forms 50 percent of all the annual catches in Korea, and that of the inshore fishery forms 40 percent, and lastly that of the deep-sea fishery forms only 10 percent of them. Comparing the catches by species, we can easily see that Korean fishery is mainly carrying on around the neighbouring waters of our country, and as the result, Korean fishing grounds and marine resources have been devasting gradually by this reckless fishing. This is also one of the main causes that the productivity of Korean fishery is decreasing year by year.

3. Now, let us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structure of Korean fishery. First we must point out that Korean fishery is managed by two classes which are entirely different in management form. One is the large scale

capitalistic fishing enterprise, another is the minor scale fishing for household management that is carried on by the hand of family for their domestic sufficiency. In such way Korean fishery forms the dual structures of management. It is very serious problem that the specific gravity of the fishing household-management is predominant. Here we can see the stagnation o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capitalistic fishery in Korea.

4. It is observed that on one hand, we have been somewhat trying how to catch much fish or marine resources, on the other hand, we have paid less attention how to circulate them economically. In other words, we have not done any endeavour to rationalze the maketing organization and the circulation process of marine products.

There are two main circulation organizations of marine products. One is the brokerage system which offers accomodations for the fishermen and collects their products, another is the joint consignment system which is managed by fishery cooperative. As we may see at the Table 3, however, the amounts of marine products dealing by the brokerage form 45 or 46 percent of all its circulation amounts in 1964 and 1965. The circulation structure of marine products is very complex and plural, and its process of marketing is also very round about way.

Table 3. **Comparative Table Fish Catches with Its Consignment Sale**, 1964 and 1965

Year	Fish Catches (A)	Consignment Sales (B)	Proportion B/A
1964	524, 295M/T	283, 648M/T	54. 1%
1965	561, 947M/T	308, 510M/T	56. 1%

Source: Bureau of Fisherie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s the result, the intermediary coat of marine productsbecomes larger than the cost of production. Owing to these facts, though the fishermen sell their products cheaply, we consumers have to buy them at a very high price.

Our conculsion is as follows; Fishery is one of the important industry in Korea. The population of 4. 5 percent of whole nations is engaged in fishery. But the means of production of fishery is very small and little,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fragile and primitive. And fishery is mainly managed by the self-use fishing household which is carried on by the labour of family for the domestic sufficiency. This means Korean fishery is stagnant in the pre-capitalistic stages.

Onthe other hand the circulation organization of marine products is complex and plural, and its process of distribution is very round about way. This makes the price of marine products to be expensive. All these defects of the structure of Korean fishery is the reason why the productivity of fishery and fisherman's income must remain in low level.